

#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14과, 1 부 열왕기상 17-18장, 1부 - 엘리야 소개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열왕기서 연구의 계속되는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당신 손에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정치적 갈등과 긴장의 장면을 볼 때 당신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당신께 나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당신 책의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주변의 세계를 통제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확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내가 분열된 왕국이라고 명명한 부분의 두 번째 하위 부문에 이르렀습니다.

분열 왕국은 1권 12장부터 2권 17장까지 이어집니다. 두 책의 주요 구분입니다. 이 하위 구분은 책의 모든 부분 중 가장 큰 단일 구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책의 어느 부분에서든 가장 큰 단일 부분을 말해야겠습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11장을 받았습니. 약 80년을 다루는 이 장은 1권 17장부터 2권 13장, 그리고 약 80년을 다루는 19장입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엘리야의 출현 사이의 55년이 단지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장이나 이 내용을 그렇게 확장된 취급에 합당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루고 있는 것은 야훼와 바알 사이의 갈등이다. 여러 면에서 이것이 이 책 전체의 중심 갈등이다.

왜냐하면 북왕국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다면 거의 의심할 여지 없이 유다는 조만간 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서 성경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매우 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야훼 사이의 갈등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 권의 책 전체 내용의 중심 부분입니다. 117장부터 213장까지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두 사역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단일한 사역이다. 바알과의 전쟁은 엘리사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이 둘이 어떻게 혼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두 개인이며 어떤 면에서는 거의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단일한 사역이다.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사명이다.

그렇다면 바알이라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바알(BAAL) 또는 히브리어 발음으로 바알(Baal)은 대기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군요. 그는 비의 신이다.

그분은 또한 다산과 초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에 매우 중요한 분이십니다. 바빌론과 이집트에는 관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큰 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요르단강은 강이라기보다는 개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리프트 밸리(Rift Valley)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을 상당한 양의 땅에 공급할 방법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폭풍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폭풍이 가을에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봄에도 또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야훼는 통제할 수 없는 분이다. 당신은 그에게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이 우주가 아니고, 마법의 의식을 통해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신뢰하는 것 뿐이다. 맵소사.

그리고 그에게 항복하십시오. 오, 이런, 맵소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나는 오히려 내가 조종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게 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일부이신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야훼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자주 이교적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전투의 핵심이다. 당신이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과 통제할 수 없는 신, 그리고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빗물이 돌에 쌓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나무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보면 거기에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번개입니다. 그리고 다른 손에는 철퇴를 들고 있습니다.

빵, 천둥. 폭풍의 신이군요. 따라서 이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17장에서 엘리야가 소개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앞으로 등장할 주제를 알아차립니다. 엘리야는 “아합아,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는 자신에게 비를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순간도 믿지 않습니다. 그의 말, 엘리야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인 17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횃수나 주님의 말씀이 언급되는 횃수를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5절,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따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아노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훼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의 형상에는 입이 있지만 그 입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와는 입이 없으나 말씀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성경을 통해, 이 생각은 하나님이 신비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한 극적인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경이롭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17장에는 세 가지 기적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그릿 시냇가로 보내어집니다.

그 시냇물은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 어딘가에 있습니다. 이곳은 엘리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는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며 까마귀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가 시냇물을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름, 멈추지 않는 꽃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셋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단순히 이 전체 부분을 선지자의 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적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전설적이고 사람들이 전설을 구성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엘리야-엘리사의 이야기에는 열왕기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신명기 부분의 나머지 부분에 속합니다. 무슨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대할 때 그들은 분명히 몇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복음서를 넘기면 기적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을 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를 설교자이자 교사로 봅니다. 무슨 이야기야?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순간, 위기의 순간, 순간입니다. 많은 기적의 또 다른 기간은 출애굽이었습니다.

나는 CS Lewis가 어딘가에서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는 계시의 강철이 회전하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칠 때 솟아오르는 불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위기의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이집트에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지금 바알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정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적은 단지 전설적인 사람들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일어난 일들의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적에서 일종의 진전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다소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음식과 물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까마귀가 가져오지만 까마귀가 찾아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은 시냇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에게 그곳에서 길르앗에 있는 어디로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땅을 가로질러 페니키아인의 영토를 거쳐 사르밧 마을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저기 보이나요? 두로 와 시돈 사이의 중간쯤 되는 거리, 거의 100마일에 달하는 적국을 지나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닌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조국이 아닌 땅에 가는 것,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는 것,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 과부에게 가는 것, 이것이 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제 과부는 여러 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부양하거나 돌봐줄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미친 짓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우리 모두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맵소사, 이건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서 한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고 내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 자신의 능력을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하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신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과부에게 왔고, 그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청하자 그는 매우 친절하고 관대하게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 그런데 나에게 먹을 음식 한 조각을 가져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생님, 기름 한 방울과 밀가루 몇 조각이 남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워 함께 요리해서 나와 내 아들에게 주고 우리가 먹고 죽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에 가서 말한 대로 하세요. 그러나 먼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를 위해 작은 빵 한 덩이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윗부분을 떼어낸 다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캐런과 나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이 십일조의 원리입니다. 이제 존 웨슬리는 10%의 법칙이 구약성서임을 아주 잘 말합니다.

당신의 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그 중 얼마를 자신을 위해 지출할 것인가입니다. 10%의 십일조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매달 말까지 기다리면 드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당신의 헌금을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돈이 이번 달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나 더 멀리 가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좋아요, 하나님, 제가 당신에게 이 제물을 드리겠으니 당신은 더 나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재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조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험박을 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당신이 가진 것을 나에게 주고 남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공급의 기적이다.

꺼이지 않은 꽃을 막지 못한 기름. 그리고 세 번째 기적,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제가 진행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아시나요?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능력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엘리야야, 나는 까마귀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엘리야, 나에게서 인생의 기본 요소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엘리야야, 나는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년은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하기를, 당신은 여기에 왔습니다. 당신은 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여기 왔고 이것 때문에 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마귀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비극이 닥치면 우리는 '어, 어쩐지 내가 이런 걸 얻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이것을 일으켰습니다. 위로자들이 옳을 정죄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인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질문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절망과 불확실성의 순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앞드리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생명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을 만질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섹션을 떠나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흥미롭게도 그 여자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주목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장을 엘리야 소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선지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는 직업이다.

선지자는 역할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품성이요, 본성이요, 존재이다. 여러분과 나는 선지자나 여선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부분 전체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급될 것입니다.

그들은 열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가? 바로 이거야.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들의 성격,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들이 누구인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엘리야를 소개합니다.